

위험유발요인이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현성호 · 차정민 · 최희천* · 김영우*

경민대학교 소방행정과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A study on the Impact of risk Induction factors to stress
Hyun, Seong Ho · Cha, Jeong Min · Choi, Hee Cheon · Kim, Yeong Woo
Dept. of Fire Protection Administration, Kyungmin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Seoul

요 약

소방공무원은 가장 위험한 직업중 하나로 과로사부터 훈련이나 화재진압 현장에서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소방공무원을 기타 다른 분야의 공무원들과 근본적으로 차이를 가지게 하는 특성으로 작용한다. 소방공무원을 둘러싼 위험을 유발하는 요소들은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있다. 위험 유발 요소들은 제도적 요인, 문화적 요인, 그리고 개인적 경험으로 분류될 수 있고 다시 하위 항목으로 나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과 관련한 위험유발요인들이 스트레스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조직몰입에 주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1. 서 론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라고 할 수 있다. 도시화가 진전되고 심화될수록 각종 재난의 위험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는 것은 현대 행정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각종 재난의 위험에 대처하는 중심에는 소방조직이 있으며, 소방조직과 그 구성원인 소방공무원에 대한 수요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소방공무원을 둘러싼 위험을 유발하는 요소들은 때로는 치명적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고로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직업의 특성상, 소방공무원은 상존하는 위험 속에서, 각종 위험유발요인들에 둘러싸인 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위험요소들은 소방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소방공무원에게 위험을 유발하는 요소들은 현장에서의 직접적 요인들에 그치지 않는다. 과도한 근무로드나 불합리한 스케줄, 동료직원들의 사고, 성과를 강조하는 문화, 불충분한 교육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위험

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현장에서 동료들의 부상이나 사망을 목격하게 되거나, 개인이 견딜 수 없는 조직문화나 불합리한 제도 등 문화적 요인이나 제도적 요인도 스트레스를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발전시킬 수 있음은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험을 유발하는 직·간접적 요인들은 결국에는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를 높이고 조직몰입을 떨어뜨려 조직의 효과성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는 조직몰입 등 조직의 효과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위험을 조사했던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38.2%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한다. 일반인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유병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1~6%로 보고되고 있는데 비해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국내외에서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를 연구한 논문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존 연구들의 경우 대부분은 조직 일반적인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소방공무원들만의 특성에 집중한 연구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논문들에서는 소방 공무원직의 가장 대별되는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위험성'이라는 측면을 간과하고 비교적 '안전'한 다른 종류의 공무원들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직무만족을 연구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즉, 소방공무원은 위험한 직업이며 위험성에서 스트레스가 온다고 하면서도 경작 위험을 유발하는 요소들에 집중한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와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은 각종 사고의 위험요소들을 안고 공직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사고위험요인에 초점을 둔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소방공무원의 직무환경 및 특성

소방공무원 직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근업무와 현장업무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소방공무원들이 활동하는 현장은 재난현장이다.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일상적인 활동이 아닌 비일상적이고,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열, 연기, 유독가스, 건물붕괴 등의 장애요인이 많은 재난현장에서 인명활동을 하고, 재산보호를 해야 하는 활동을 한다. 화염, 열기, 농연 등이 가득한 현장은 가스, 유류 등 위험물에 의한 폭발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잠재되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업한다는 것은 인간 본능에 의한 이상심리에 지배된 흥분, 긴장상태 등을 경험할 확률을 높여주게 된다. 이러한 점들이 소방공무원만의 특징적인 것이 되는데, 외근과 현장근무가 많은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해 볼 때도 대부분의 다른 공무원들은 위험요소들을 피하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들은 위험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방현장 활동은 격무이며 활동이 개시되면 신체적·정신적으로 극한 상태까지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활동 중 효과적인 진압 등을 방해하는 요소가 나타날 경우 이를 극복하면서 소방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력 이상의 인내력까지도 필요하게 되므로 심신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여러 직종 중에서도 소방 공무원의 직은 매우 특수하다고 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현장 활동에 있어서 불안, 공포 등과 같은 심리적 상태가 흔해진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지휘관의 지시와 팀장의 리더에 의해서 생명을 걸고 화재 및 구

조·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시적인 출동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청사 내를 벗어날 수가 없으며 의·식·주를 청사 내에서 다 해결해야 하는 업무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행태는 다른 유형의 공무원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소방공무원은 각종 사고·사건의 현장 활동에서 긴박한 위협에 순간순간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이에 대한 정책 개발 등 개선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는 소방관 개인 및 조직 전체의 사기양양과 소방력 보존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소방활동의 능률과 생산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소방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의 중요 관심 사안이며, 소방공무원 개인과 가족의 생활안전과 행복한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3. 연구의 조사 및 설계

본 연구에서는 먼저 소방공무원과 관련한 위험유발요인들이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와 소방공무원들의 조직몰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고찰한다. 즉, 위험요소들과 소방공무원의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스트레스라는 매개적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매개적 변수로서 스트레스 세부측정지표로는 1) 일을 마친 후 소심증이나 신경과민을 느낀다. 2) 업무나 직장을 생각하느라고 쉽게 잠들지 못한다. 3)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한다. 4) 직무수행으로 인한 피로감으로 식욕이 저하된다. 등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매개변수(스트레스)에 대한 응답분포

스트레스 요인은 상기 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3.97을 기록하여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수준은 표면적으로는 보통으로 기록되었다. 스트레스 관련 설문들 4개 중 3개는 4점에 약간 못미치는 값을 나타내었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에 대한 응답만이 4.3점을 기록하여 보통 이상의 인식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근무환경의 열악성이라든지, 근무의 위험성이라든지 하는 요인들을 감안하면 예상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연구에 비해 스트레스가 다소 낮은 점수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4.2 위험유발요인들과 스트레스(매개변수)간의 다중 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성원의 사고경험(+), 배려문화(-), 성과주의(+), 근무환경의 적정성(-)이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사고경험과 안전 교육의 적정성은 스트레스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경험과 관련해서는 구성원의 사고경험은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지만, 조직의 경계 밖의 일반인들의 사고경험은 스트레스 수준과는 유의성이 없었는데, 이는 조직 구성원의 사고는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반면 일반인들의 사고는 처리해야 하는 일로서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

다.

4.3 주요변수들에 대한 경로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한 결과 회귀분석에서 검증한 바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스트레스에는 조직원 사고경험(+), 배려문화(-), 성과주의문화(+), 근무환경의 적정성(-)이 유의미한 변수로서 나타났으며, 조직몰입에는 배려문화(+), 교육의 적정성(+),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경로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업무환경의 적정성(-)이 가장 높았으며, 성과주의 문화(+), 조직구성원의 사고(+), 배려문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안전교육의 적정성(+), 배려문화(+), 스트레스(-)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1. 강성완 (2006),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경민대학 (2010), “재난유형별 안전사고 특성분석 및 예측기술개발”, 소방방재청 연구용역 보고서.
3. 김혁, 정요안 (2005), “소방방공무원의 내부고객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Vol.19 No.4.
4. 오진환 (2006), “소방대원의 2차 외상성 스트레스, 소진 및 신체적 증상의 영향요인 분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이상구 (2007),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최혜경 (2010), “소방공무원의 외상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 정서적 탈진, 신체증상, 사회 및 직업기능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 현성호, 김영우, 최희천 (2010), “소방공무원의 위험유발요인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Vol.24 No.6.
8. 현성호 외 5인 (2010), “소방현장지휘론”, 동화기술.